KMI 국제물류위클리
KMI International Logistics Weekly

제816호
2026.11.20.
www.kmi.re.kr

편집 및 발행인 : 조정희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김동환 **감수 :** 이언경 **전화번호 :** 051-797-4913 **E-mail :** kdong@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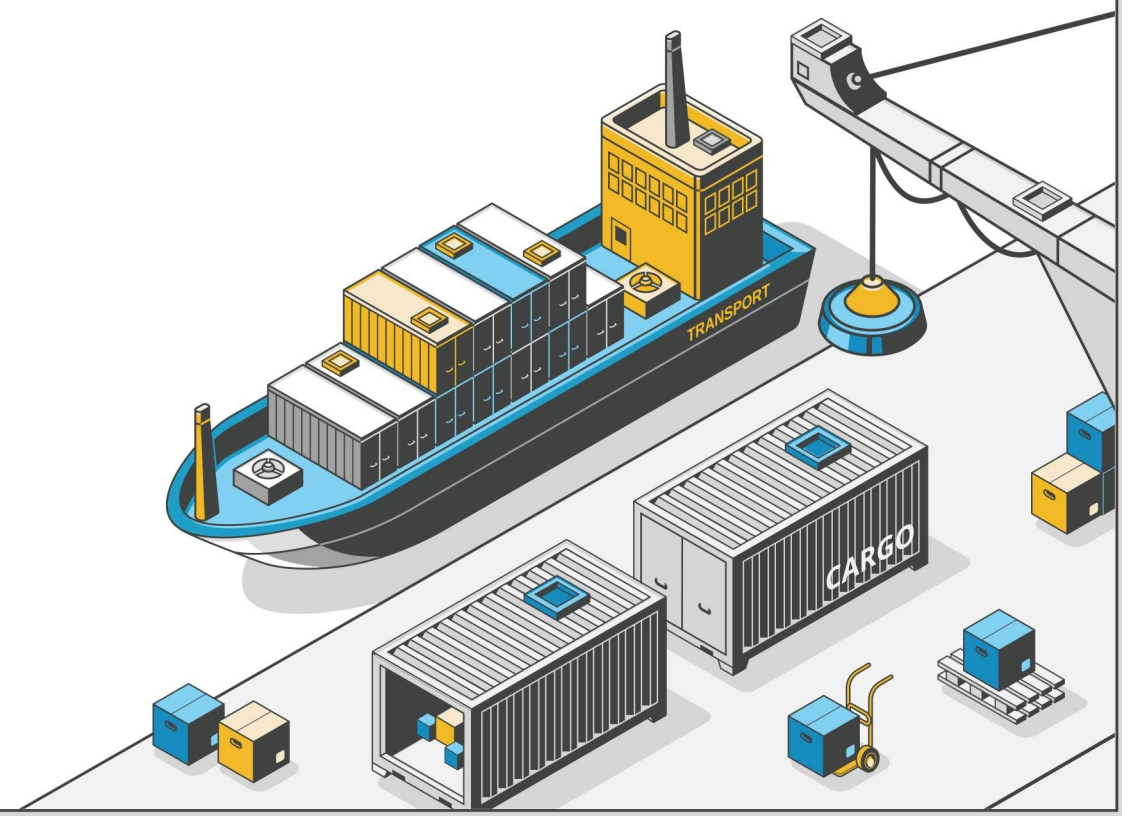
목 차

아시아 물류시장 동향
- 인도, 서안항만 확충·배후철도망 연결성 강화 추진

유럽 물류시장 동향
- EU, 중국산 전기차 무역규제 강화… 중국은 현지 전기차 공급망 구축 가속화

미국 물류시장 동향
- 금년 9월 美·멕 교역액 34.2% 증가… 트럭운송·라레도 비중 두드러져

공지사항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국제물류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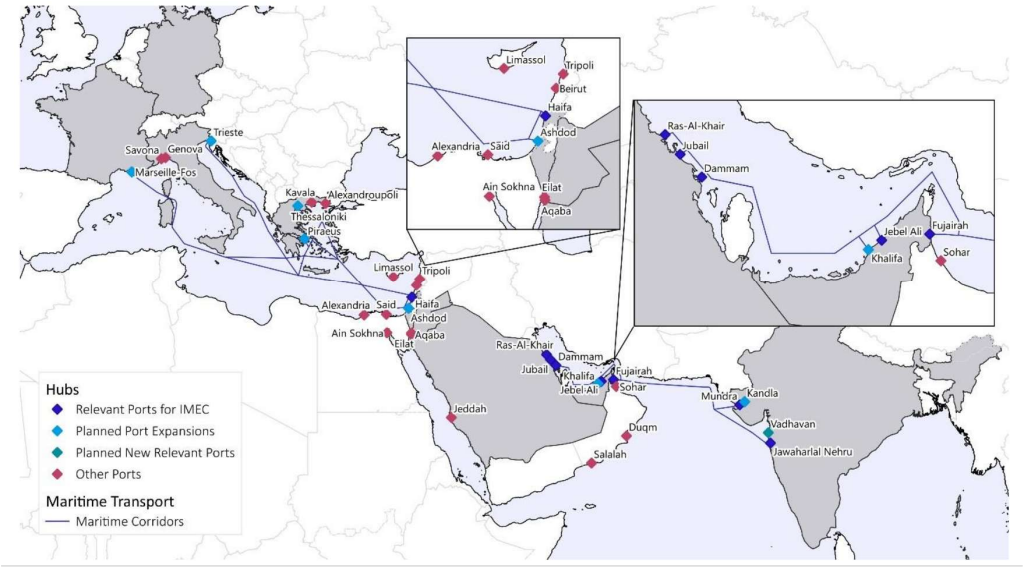
아시아 물류시장 동향

인도, 서안항만 확충·배후철도망 연결성 강화 추진

- **OECD는 인도 서안항만의 처리능력 확충과 중동지역의 국가 간 철도망 연결을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주요 과제로 제시함**
  - OECD는 '26년 11월 5일 발표한 「Measuring Connectivity across the India-Middle East-Europe Corridor」에서 항만·철도·도로 인프라와 통관체계를 분석하고, IMEC(India-Middle East-Europe Corridor)의 물류 연결성 개선 과제를 제시함
  - IMEC는 인도 서안항만과 중동 항만을 해상운송으로 연결하고, 중동 내륙운송망을 거쳐 동지중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복합운송회랑 구축을 목표로 함
  - OECD는 IMEC 구간의 항만 처리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향후 물류 병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중동지역의 국가 간 철도망 미연결이 복합운송의 주요 제약요인이라고 분석함

- **OECD는 인도 서안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처리능력의 평균 약 80%에 달해 향후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문드라(Mundra)·칸들라(Kandla)·뭄바이(Mumbai)항은 마하라슈트라주와 구자라트주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도로망을 갖춰 IMEC의 인도 측 주요 관문항으로 평가됨
  - OECD는 향후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수송수요 확대로 현재의 항만 처리능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이에 따라 기존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바드반(Vadhavan)항과 같은 신규 항만을 개발해 인도와 중동·유럽 간 해상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병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주요 항만 및 해상운송 연결망



자료: OECD(2026), p.57 (원자료: OpenStreetMap, ITF) (검색일: 2026.11.16.)

KMI 국제물류 위클리

아시아 물류시장 동향

- **인도 자와할랄네루항(JNPA)은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확대했으며, '26년 10월에는 역대 월간 최고 물동량을 기록함**
  - OECD에 따르면, 자와할랄네루항은 '25년 인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터미널을 개장하면서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1,000만 TEU로 확대함
  - JNPA의 공식 운영실적에 따르면, '26년 10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86만 4,255TEU로 전년 동월 대비 27.05% 증가하며 역대 월간 최고 실적을 기록함
  - 또한 '26년 4~10월 누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552만 5,772TEU로 전년 동기 대비 18.99% 증가함

- **인도 정부는 기존 서안항만의 처리능력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바드반(Vadhavan) 신항만 개발과 배후교통망을 확충하고 있음**
  - OECD는 뭄바이 북쪽 약 150km에 위치한 바드반항을 대형 컨테이너선 입항을 지원하는 심수항만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35년까지 연간 1,500만 TEU의 처리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 인도 항만해운수로부는 '26년 3월 의회 답변에서 토지 확보 지연 등의 영향으로 바드반항 1단계 시설의 완료 목표를 기존 '29~'30년에서 '31~'32년으로 조정했다고 밝힘
  - 인도 국립고속도로청(NHAI)은 '26년 4월 바드반항과 NH-48 국도의 타바(Tava) 마을을 연결하는 32.1km의 4차로 진입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발급함
  - 한편, 인도 정부의 항만 개발계획에는 바드반항과 연결하는 약 22.22km의 철도 건설사업도 포함됨

- **인도는 자와할랄네루항과 내륙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서부 전용화물철도를 완공하며 항만 배후운송망을 확충함**
  - OECD는 자와할랄네루항과 뉴델리 인근 다드리(Dadri)를 연결하는 1,506km의 서부 전용화물철도(Western Dedicated Freight Corridor, WDFC)가 철도 화물운송 능력을 확대하고 델리~뭄바이 산업회랑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함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26년 9월 8일 서부 전용화물철도 마지막 3개 구간(총 326km)의 개통으로 1,506km 전 구간이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함
  - JICA는 이번 철도망 완공으로 자와할랄네루항과 인도 북서부 주요 산업지역 간 직접 철도 연결이 가능해져 화물 운송시간과 물류비 절감, 기존 철도망의 혼잡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인도 서안항만 및 배후철도 주요 개발 현황

구분	주요 개발 내용	추진 현황
자와할랄네루항 (JNPA)	'25년 컨테이너터미널 개장으로 연간 1,000만 TEU 처리능력 확보	'26년 10월 86만 4,255TEU를 처리하며 역대 월간 최고 실적 기록
바드반항	신규 심수항만 개발 및 배후도로·철도 연결사업 추진	1단계 완료 목표 '31~'32년으로 조정('26년 3월 기준), 4월 진입고속도로 건설사업 낙찰통지서 발급
서부 전용화물철도 (WDFC)	자와할랄네루항~다드리 간 1,506km 전용화물철도 연결	'26년 9월 전 구간 완공 및 운영 개시

주: 항만의 연간 처리능력과 실제 컨테이너 물동량은 서로 다른 지표이며, 개발계획과 완료 사업을 구분함
자료: OECD(2026), pp.57~58;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Ports, Shipping and Waterways(2026.3.17.); www.jnport.gov.in; www.pib.gov.in (검색일: 2026.11.16.)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우리나라도 인도 서안항만의 처리능력 확충과 배후운송망 개선에 따른 물류서비스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물류기업은 자와할랄네루항의 처리실적과 바드반항 개발 일정, 서부 전용화물철도 운영 현황 등을 함께 살펴 인도 서안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IMEC의 중동 구간에는 국가 간 철도망 연결과 통관체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인도 내 인프라 확충이 실제 인도·유럽 간 복합운송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OECD(2026.11.5.), Measuring Connectivity across the India-Middle East-Europe Corridor;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Ports, Shipping and Waterways(2026.3.17.), Development of Vadhavan Port in Maharashtra, Rajya Sabha Starred Question No.268; www.jnport.gov.in, www.pib.gov.in, www.jica.go.jp (검색일: 2026.11.16.)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KMI 국제물류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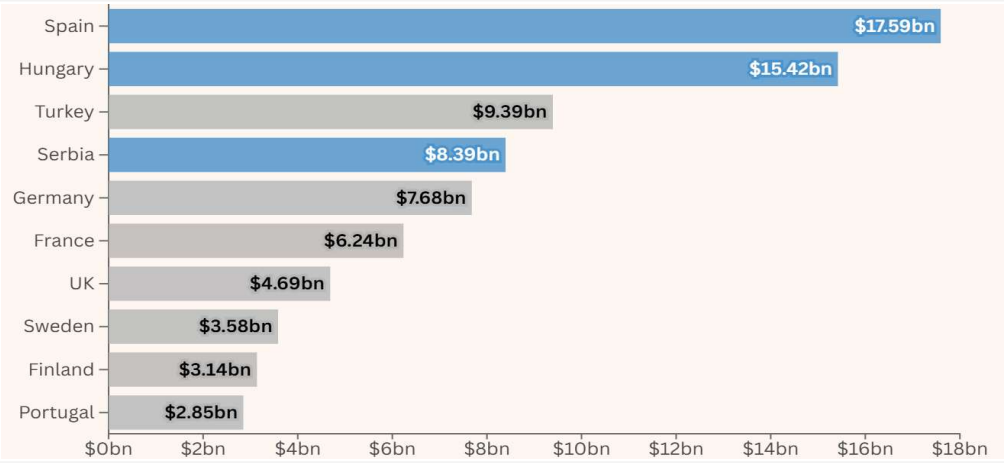
유럽 물류시장 동향

EU, 중국산 전기차 무역규제 강화… 중국은 현지 전기차 공급망 구축 가속화

● **중국 정부와 기업이 유럽 대상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Greenfield FDI)를 확대해 국제철도 인프라 확충과 원자재·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 중국 정부와 기업은 '20~'26년 9월 유럽의 주요 10개국에 산업 인프라 개발을 목적으로 790억 달러 규모의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를 발표했음
- 특히 중국의 스페인·헝가리·세르비아 대상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총 투자 금액 대비 52.4%로 스페인 175.9억 달러, 헝가리 154.2억 달러, 세르비아 83.9억 달러임
- EU는 '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 10%와 제조사별 추가 상계관세 7.8~35.3%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기업은 헝가리·스페인·세르비아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 현지화, 광물자원 개발 및 교통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유럽 국가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 ('20~'26년 9월)



자료: www.fdiintelligence.com(검색일: 2026.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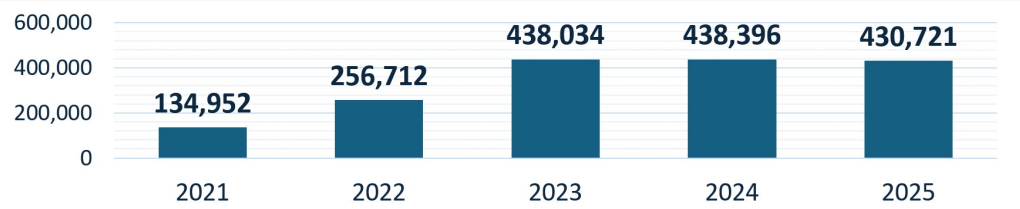
● **중국 자동차 기업은 유럽 내 자사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계 자동차 기업 대상의 배터리 공급망 연계를 강화할 계획**

- 중국발 유럽행 전기차 수출 물동량은 '21~'24년까지 증가했으나 '24년 10월 상계관세 부과에 따라 '25년 물동량은 430,721대로 감소했음
- 중국 CATL社는 '22년 8월 헝가리 데브레첸 지역에 73.4억 유로를 투자해 연간 100GWh 생산능력의 배터리 생산시설 구축 사업 1단계를 '26년 10월 완료했으며 시험가동 중임
- 또한 CATL社는 네덜란드 Stellantis社와 합작 투자해 스페인 사라고사 지역에 연간 50GWh 생산능력을 갖춘 배터리 생산시설을 구축했으며, '27년 초에 상업적 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 중국 BYD社는 헝가리 세게드 지역에 자사 전기차 생산시설을 확보했으며 '26년 말 전기차 조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공정의 시험가동은 '27년까지 진행할 예정임

- 중국 Minth Group社는 세르비아 샤바츠의 기존 자동차 부품 생산거점을 확장해 '2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76만 개의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및 관련 부품 생산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중국발 유럽행 전기차 수출 물동량 변화 추이('21~'25년)

(단위: 대)



자료: EuR-Lex 및 Eurostat 자료 기반 저자 재구성(검색일: 2026.11.19.)

중국 정부는 국제철도 인프라 개발 협력을 통해 광산개발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자국 기업 유럽 물류망 확장을 지원

- 중국·세르비아·헝가리 정부는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25년 10월 세르비아 구간과 '26년 2월 헝가리 구간의 철도 운송 개시로 발칸반도-중부유럽 간 물류 연계성을 강화했음
- 한편 중국 Zijin Mining社는 '23년 9월 세르비아 Čukaru Peki 광산 광구 개발에 나서 Bor 및 Čukaru Peki 광산 운영을 통해 '25년 구리 29만 6,000톤과 금 9.1톤을 생산했음

중국의 유럽 전기차 산업·물류 인프라 대상 투자는 역내 조달·생산체계 구축에 기여

- 중국 기업의 헝가리, 스페인, 세르비아 내 배터리 생산시설 개발 및 광산개발은 중국산 전기차 공급망 구조를 유럽 역내 생산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중국 정부의 국제철도 운송 인프라 확충은 세르비아, 헝가리 및 스페인 대상 관련 산업의 유럽 역내 복합운송체계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음

참고자료: www.fdiintelligence.com, www.electrive.com, https://merics.org
(검색일: 2026.11.17.)

황제호 전문연구원
051-797-4685, hjh3904@kmi.re.kr

KMI 국제물류 위클리

미국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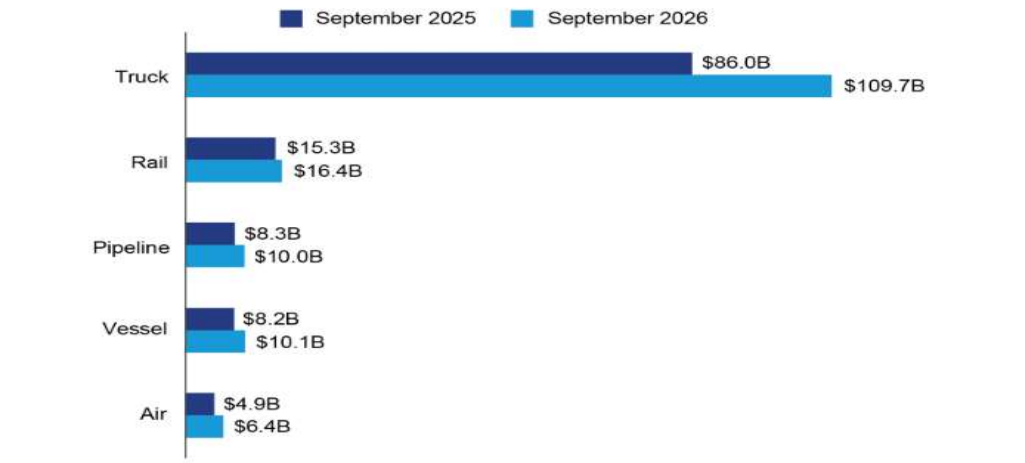
금년 9월 美·멕 교역액 34.2% 증가… 트럭운송·라레도 비중 두드러져

’26년 9월 미국의 對캐나다·멕시코 교역액은 전년 동월 대비 23.4% 증가했으며, 전체 증가분의 약 80%가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발생

- 美 교통통계국(BTS)에 따르면 ’26년 9월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수출입 교역액은 1,61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4% 증가함
- 美·멕시코 교역액은 963억 달러로 34.2% 증가해, 美·캐나다 교역액인 648억 달러와 증가율 10.1%를 모두 웃돌았음
- 멕시코는 두 구간을 합한 교역액의 약 60%, 전년 동월 대비 증가분의 약 80%를 차지해 미국의 對캐나다·멕시코 교역 확대를 주도함
- 이러한 교역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멕시코산 컴퓨터·서버 수요 증가가 꼽히며, 아시아산 부품을 멕시코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공급하는 생산·물류 연계가 강화되고 있음

미국 對캐나다·멕시코 운송 수단별 교역액(’25년·’26년 9월 기준)

(단위: 십억 달러)



주: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수출입 화물의 상품가액을 운송수단별로 합산한 것임.
자료: 미국 교통통계국(BTS), ’26년 9월 북미 국경 화물 교역 통계(검색일: 2026.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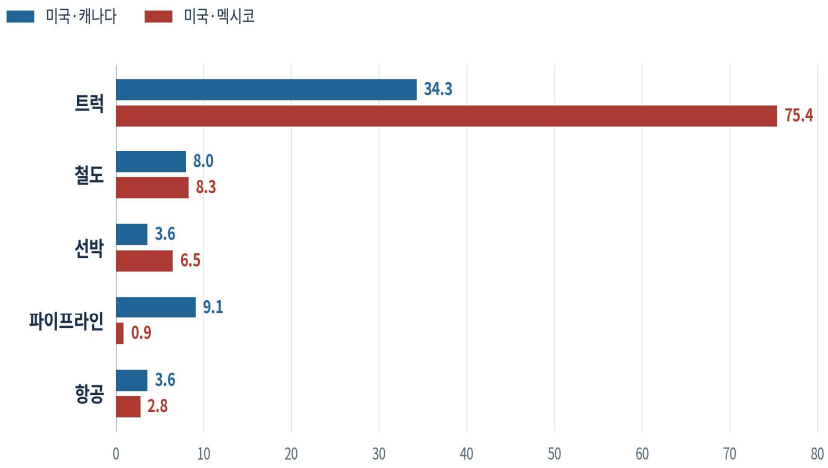
트럭이 美·멕시코 교역액의 약 78%를 담당한 가운데, 구간별 품목과 목적지에 따라 철도·파이프라인의 역할 차별화

- 두 국경 구간에서 트럭으로 운송된 화물의 가액은 1,097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6% 증가해, 주요 운송수단 중 금액 증가 폭이 가장 컸음
- 양국 간 교역액에서 트럭이 차지한 비중은 美·멕시코 약 78%, 美·캐나다 약 53%로, 멕시코 구간의 트럭 비중이 약 25%포인트 높음

- 제시된 운송수단 중 트럭 다음으로 교역액이 큰 수단은 멕시코 구간에서는 철도, 캐나다 구간에서는 파이프라인으로 나타나, 구간별 운송 구조에 차이를 보임
- 멕시코와 美 중서부를 연결하는 철도 서비스로는 CPKC의 'Mexico Midwest Express(MMX)'가 있으며, 몬테레이·산루이스포토시와 라레도·캔자스시티·시카고를 연결함
- 해당 구간의 정기 출하 화주는 집하·최종 배송까지 포함한 비용과 소요시간을 비교해 철도·트럭 연계 운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캐나다 구간은 제조업 화물과 에너지 화물의 운송 특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북미 국경 구간별·운송 수단별 교역액('26년 9월)

(단위: 십억 달러)



주: 미국과 각 상대국 간 양방향 교역의 운송 수단별 상품가액 합계임.
자료: 미국 교통통계국(BTS), '26년 9월 북미 국경 화물 교역 통계(검색일: 2026.11.13.)

美·멕시코 교역액의 약 40%가 텍사스 라레도에 집중돼, 주요 운송망 활용과 함께 지연에 대비한 대체 통과 경로 검토 필요

- 라레도를 거친 화물의 가액은 모든 운송 수단을 합해 약 381억 달러로 BTS가 집계한 통과 거점 중 가장 컸으며, 美·멕시코 간 교역액의 약 40%에 해당함
- 라레도와 엘패소는 트럭·철도 모두에서 주요 통과 거점으로 나타났으며, 트럭은 오타이메사, 철도는 이글패스도 주요 거점에 포함됨
- 이는 라레도가 핵심 관문임을 보여주지만, 실제 운송 경로는 화물의 출발지·목적지와 이용 가능한 트럭·철도 서비스를 함께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통관 지연이나 운송 차질에 대비한 우회 경로는 거리뿐 아니라 통관 가능 품목, 운영 시간, 환적 시설과 현지 운송업체의 대응 여건까지 확인해야 함

KMI 국제물류 위클리

미국 물류시장 동향

- **우리 제조·물류기업은 교역 확대를 사업 기회로 활용하되, 실제 출하 수요와 납기 조건에 맞춰 운송·거점 확보 전략 수립 필요**
  - '26년 9월 미국의 對캐나다·멕시코 교역에서 컴퓨터 관련 기계·부품의 교역액이 413억 달러로 가장 컸으며, 차량(철도용 제외, 208억 달러)과 전기기계·장비 및 부품(201억 달러)이 뒤를 이었음
  - 다만 교역액에는 상품 가격과 품목 구성의 변화도 반영되므로, 트럭운송액 증가율을 차량이나 창고 수요의 증가율로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차량·창고 확충에 앞서 화주별 출하 빈도와 물량, 국경 양측의 차량 확보 여건, 환적·보관 수요를 확인해 투자 규모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 생산거점을 둔 제조기업은 납기가 촉박한 화물의 트럭 직송 경로를 확보하고, 정기 출하 화물은 철도·트럭 연계 운송의 총비용과 소요시간을 비교할 수 있음
  - 물류기업은 이러한 화주의 운송 조건에 맞춰 배차·통관·환적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요 경로에 차질이 생겼을 때 실제 전환할 수 있는 현지 협력망을 갖출 필요가 있음

북미 주요 국경 통과지점 교역액('26년 9월)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미국 교통통계국(BTS), '26년 9월 북미 국경 화물 교역 통계(검색일 2026.11.13.)

참고: www.bts.gov (검색일 2026.11.13.)

성현정 전문연구원
051-797-4648, hjsung@kmi.re.kr

KMI 국제물류 위클리

공지사항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